

18.07.30(월)~18.08.03(금)

강승건. neo.cygun@hi-ib.com  
최영수. yschoi@hi-ib.com

##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단위: pt, 원, 심의원, 배, %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공매도 거래대금	1W
KOSPI	2,288	1,378,856	1.0	9.1	11.3	-0.3	0.7	-8.0	-9.4	-7.3	-718	354	-114	1,383	7,902
KOSDAQ	789	154,698	2.5	17.9	14.2	1.9	-0.9	-8.9	-12.3	-1.2	-157	-222	38	483	2,435
보험	17,731	19,820	0.6	9.1	7.0	0.3	0.9	-8.6	-20.5	-16.1	16	-8	12	19	89
증권	1,806	18,627	0.8	8.5	9.4	-0.4	-2.3	-14.4	-22.6	-9.1	-8	-14	-1	19	113
삼성생명	95,200	19,040	0.6	8.1	7.1	-0.5	-1.4	-16.1	-25.9	-23.5	-14	8	-4	2	17
한화생명	5,110	4,438	0.5	7.8	6.0	-0.4	-0.6	-16.1	-29.8	-26.0	1	-3	2	1	6
ING생명	41,500	3,403	0.9	9.9	9.3	1.6	3.9	0.2	-28.2	-22.3	0	1	-0	1	5
동양생명	7,390	1,192	0.5	8.3	5.8	-2.2	0.7	-9.0	-7.4	-2.8	-1	0	-0	0	1
삼성화재	265,500	12,578	1.0	11.5	9.0	-1.8	0.2	-2.0	-9.8	-0.6	-3	1	3	3	19
DB손해보험	65,000	4,602	0.8	6.6	13.1	5.5	9.6	3.0	-12.2	-8.7	16	-7	6	5	18
현대해상	36,950	3,303	0.9	5.9	15.6	4.2	7.7	-1.6	-20.0	-21.4	14	-8	4	7	16
메리츠화재	18,600	2,114	1.1	6.8	16.8	-0.3	-3.6	-9.5	-26.3	-20.9	2	-2	0	0	2
한화손해보험	7,020	820	0.6	5.6	11.9	7.2	7.8	-4.6	-21.5	-13.8	1	-0	0	0	2
삼성증권	32,400	2,893	0.6	7.8	8.1	0.3	-3.9	-11.1	-23.6	-11.5	-3	1	-2	3	13
미래에셋대우	8,090	5,326	0.7	8.6	8.4	-1.0	0.6	-14.8	-24.0	-12.0	-2	-4	1	5	41
NH투자증권	13,000	3,658	0.8	8.6	9.1	-0.8	-8.5	-13.9	-19.0	-6.5	-1	-7	2	5	25
한국금융지주	69,700	3,884	0.9	6.7	14.8	-3.1	-14.1	-20.8	-17.7	1.0	4	-7	-0	2	26
키움증권	93,000	2,055	1.1	7.2	17.9	-1.7	-9.7	-20.9	-14.3	6.2	-2	-1	0	1	9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frnguide 컨센서스 기준

##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음. 한화손보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표(자보손해율, 사업비율)의 일정부분 안정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타 손해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판단됨
	▶ 금감원 "보험사, GA 특별수당 낮춰라": 금감원은 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시책 상한선을 월보험료의 250%까지로 운영하도록 권고. 이에 따라 상위사는 8월 1주차 GA 대상 시책을 250%로 일제히 하향 조정. 지난달 첫주차 시책은 400%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 시 큰 폭 감소. 다만 금감원 구두 권고로 인한 시책감소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
	▶ 금감원, 암보험도 일괄구제 권고하나: 금감원은 암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 관련 민원에 대해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 즉시 연금처럼 애매한 약관 문제를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증권	증권업종 악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악세를 시현하였음.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홍콩 H 지수의 급락과 중국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임. 주도업종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들의 매매참여가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원을 하회하였음. 이 또한 증권업종의 악세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됨
	▶ 뜨겁던 ELS 급랭: 국내 중시 및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초기상환 가능성이 줄어들고 ELS 발행이 위축되면서 7월 발행규모는 상반기 월평균대비 37% 급감하였음
	▶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순항… 출시 한 달 8,000억원 돌파: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판매액이 출시 한 달 만에 8000억원을 돌파하여 연간 목표(1조 5000억원)의 절반이상을 달성하였음. 발행어음형 CMA 잔액도 1조원을 돌파하였음.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	3Q17	4Q17	1Q18	2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KOSPI+KOSDAQ	7.9	-12.2	12.4	14.3	15.0	12.4	9.0	8.0	-11.2	8.2	11.8	13.8	13.9	8.8	-36.6
KOSPI	4.7	-11.7	6.9	7.8	9.1	7.5	5.5	4.7	-14.2	5.2	6.0	7.0	8.1	5.4	-33.5
KOSDAQ	3.2	-12.8	5.5	6.5	5.9	4.9	3.4	3.2	-6.3	3.0	5.8	6.8	5.8	3.4	-41.1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KOSPI+KOSDAQ	10.9	10.7	11.3	12.2	12.5	11.8	10.8	10.9	0.6	8.3	9.8	11.3	11.8	10.9	-7.5
KOSPI	5.5	24.2	5.4	6.0	6.2	6.0	5.5	5.5	0.2	4.0	4.5	5.4	6.0	5.5	-7.1
KOSDAQ	5.4	-0.5	5.9	6.2	6.3	5.8	5.3	5.4	1.0	4.3	5.4	5.9	5.8	5.4	-8.0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1년	1.82	-0.4	1.89	1.85	1.85	1.85	1.83	1.82	-0.9	1.53	1.85	1.89	1.85	1.82	-3.0
3년	2.10	-1.3	2.22	2.22	2.20	2.12	2.13	2.10	-2.3	1.89	2.13	2.22	2.12	2.10	-2.0
5년	2.36	2.0	2.43	2.49	2.48	2.35	2.36	2.36	-0.7	2.08	2.35	2.43	2.35	2.36	0.4
10년	2.58	8.3	2.62	2.72	2.70	2.56	2.57	2.58	0.5	2.37	2.47	2.62	2.56	2.58	2.0
약정 MS	%	17년대비, %p							%p						%p
삼성증권	6.1	0.1	6.2	6.4	6.1	6.0	6.1	6.1	-0.0	6.2	6.0	6.2	6.2	6.1	-0.1
미래에셋대우	12.3	-0.3	13.1	13.2	12.8	12.3	12.4	12.3	-0.0	12.7	13.2	13.3	12.8	12.4	-0.5
NH투자증권	6.5	0.5	6.3	6.4	6.4	6.5	6.5	6.5	0.0	5.7	6.4	6.3	6.4	6.5	0.1
한국금융지주	5.3	-0.5	5.5	5.5	5.2	5.1	5.3	5.4	0.1	6.1	5.8	5.7	5.3	5.3	0.1
키움증권	17.1	0.6	17.1	18.5	18.2	17.9	16.9	17.2	0.3	15.3	17.4	17.5	18.2	16.9	-1.3

자료: KOFIA, Check, KRX

## 4. 금주 전망

보험	미중 무역분쟁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환율 방어등의 목적으로)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이 중국의 첨단산업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하여 환율/수출/무역 장벽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보험업종 역시 해외투자자들의 헛기울이 오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고 금리 상승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펀드멘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존재함	
	금주에는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예정임. 손해보험사에 기대하고 있는 지표의 안정화가 실적을 통해 확인된다면 투자심리는 개선될 여지가 높으며 상대적 강세 시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우리는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함.	
증권	주도주의 부재, 불확실성의 지속, 경기에 대한 우려 확산 등 주식시장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됨. 주도주의 부재는 결국 개인들의 매매 참여도 하락으로 연결되며 거래대금 감소, 신용융자 감소 등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Brokerage 관련 이익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8월의 거래대금은 8조원을 하회하며 시작하였음. 이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반기의 높은 회전율이 하반기에는 역기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또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자금의 부동산에서의 이탈에 대한 우려도 추가되고 있음. 증권사들의 IB 실적에서 부동산 PF 관련 매입약정, 미 담당대출 등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매입 후 sell down 을 통해 최근에 이익을 많이 시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수익 창출 기회 축소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함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Valuation은 매력적인 상황이지만 3분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투자심리를 감안할 때 3분기 실적의 추가적인 하향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8월 중순까지 거래대금 흐름을 체크하여 이를 실적에 반영할 예정임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8월 7일	미국	6월 JOLT 빈 일자리 수	6,638M	
8월 9일	중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4.7%	4.4%
8월 9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0.3%	0.3%

##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금감원 "자살보험금 때와 달라"…즉시연금 대응 부심 (연합인포맥스) 삼성생명 이사회 결의후 금감원 긴급회의 통해 대응안 논의했지만 방향 잡지 못한 상황.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같이 보험사들을 압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약관 위반 등으로 제재가 가능한지와 국민검사청구권 등을 통한 검사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음.</p> <p>▶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5%로 제한" (디지털타임즈) 공정거래법 개정 특위, 보고서 확정.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 사외편취 적용 지분 20% 일원화,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제안, 전속고발제는 보완·유지로 의견</p> <p>▶ 더우면 교통사고 더 난다… 올여름 8% 급증 (조선) 삼성교통研, 사고 186만건 분석 "1도 오르면 교통사고 1.2% ↑ … 더위로 운전자 집중력 흐트러져.</p> <p>▶ 보험연구원, "미·중 무역 분쟁 확대…보험업계 대응방안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 미중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면, 주가하락·달러 강세심리 확산·증장기 금리 변동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p> <p>▶ 韓 '큰손' 오피스빌딩 소핑…美 떠나 英으로 (머니투데이) 브렉시트 후 저평가, 금리도 낮아 투자매력 부각…단기 쓸림현상에 과당경쟁 우려도</p> <p>▶ M&amp;A '큰손' 기대했던 우리은행, 자본비율이 발목 잡나 (머니투데이) 지주사 전환 시 BIS 충자본 비율 10% 내외로 급락…신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감독규정상 내부등급법 쓸 수 없기 때문. 타 지주사 대비 '역차별' 논란도</p> <p>▶ [단독]암보험 약관 분쟁, 민간 자율조정 기구 만든다 (머니투데이) 생보업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기구 설립 검토…암보험 외 다른 분쟁으로도 기능 확대할 듯</p> <p>▶ [마켓인]한투·삼성화재, 英 태양광 '옥토퍼스'에 1600억 투자 (이데일리) 한투 500억 지분투자, 1100억 선순위대출 '총액인수'. 영국 전력시장 전문성 내세워 글로벌 경쟁 뚫고 단독 입찰.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 혜택 '매력적'..틈새투자로 각광</p> <p>▶ 교보생명 상장 추진… "5조원대 자본금 확충" (동아) 7월말 이사회에 IPO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할 계획으로 보고.</p> <p>▶ 생보사 즉시연금 흰급, 약관따라 4갈래길 (머니투데이) 유형별로 4가지 유형…삼성생명 경우는 차감근거 명시 안해 분쟁 소지</p> <p>▶ 삼성화재 K-ICS 자체모형 마련, 예비신청절차 돌입 (헤럴드) 2021년 K-ICS 도입 대비 내부모형 전담 TF 구성</p> <p>▶ 車보험 공동인수 1년만에 다시 급증…손해율 높아진 탓 (뉴스핌) 분기내만 28만대…올해 50만건 넘어 사상 최대치 기록할 듯</p> <p>▶ '文케어 보고서' 내달 마무리… 실손보험료 인하 촉각 (이투데이) 8월 중순 문케어 보고서 마무리 될 예정</p> <p>▶ 최종구 "실손보험금 간편청구로 사적 안전망 강화해야" (뉴스1) 인슈테크 확산 위해 규제 적극 완화… 실손보험청구방식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p> <p>▶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370억원 8월 중 모두 지급 (이데일리) 2~3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키로. 근거 불분명한 일부 사안은 민원인과 법적 소송 대응할 듯</p> <p>▶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IB와 美 세일가스 개발사업 투자 (서울경제) UBS·도이치뱅크와 손잡고 7,300억원 규모 금융 주선. NH아문디운용과 펀드 조성 국내 투자자 모집·판매 계획.</p> <p>▶ 금감원, 암보험도 일괄구제 권고하나 (이데일리)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모호한 약관 이유로 '일괄구제 권고' 가능성 커. 업계 "비급여 과잉진료 양산 우려"</p> <p>▶ '기록적인 폭염' 손보사 車손해율 '비상' (조선) 6월 가마감 자동차손해율 △삼성화재(80.6%) △현대해상(80.4%) △DB손보(79.2%) △메리츠화재(75.6%)</p> <p>▶ 발행어음, A급 이하 기업 조달창구 역할 '톡톡' (더밸) BBB급 비우량 기업 수혜 증가…공모채 구축 우려는 과제</p> <p>▶ 금감원 "보험사, GA 특별수당 낮춰라" (대한금융신문) '월 보험료의 2.5배까지' 상한선 제시/ 과당경쟁 여전 "지점장 통제 어려워"</p> <p>▶ 뜨겁던 ELS 급랭…팽팽한 증권사 실적 막구름 (머니투데이) 증시 조정 탓 상반기 월평균 대비 7월 발행액 37%급감…채권시장도 악세 '자기매매' 수익 둔화</p> <p>▶ '민원 폭발' 암보험금 어디까지 해결? …"보험사들, 전향적 검토" (노컷) 금감원, 보험사에 전향적 검토 요구. 암보험금, 다음 개최되는 분조위 안건 상정 예정</p>
----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W	1M	3M	6M	YTD
한국	KOSPI	2,288		1.0	9.1	11.3	3.1	-0.3	0.7	-8.0	-9.4	-7.3
	보험	17,731		0.6	9.1	7.0	0.7	0.3	0.9	-8.6	-20.5	-16.1
	삼성생명	95,200	16.9	0.6	8.1	7.1	0.7	-0.5	-1.4	-16.1	-25.9	-23.5
	한화생명	5,110	4.0	0.5	7.8	6.0	0.4	-0.4	-0.6	-16.1	-29.8	-26.0
	ING생명	41,500	3.0	0.9	9.9	9.3	1.1	1.6	3.9	0.2	-28.2	-22.3
	동양생명	7,390	1.1	0.5	8.3	5.8	0.4	-2.2	0.7	-9.0	-7.4	-2.8
	삼성화재	265,500	11.2	1.0	11.5	9.0	1.4	-1.8	0.2	-2.0	-9.8	-0.6
	DB손해보험	65,000	4.1	0.8	6.6	13.1	1.2	5.5	9.6	3.0	-12.2	-8.7
	현대해상	36,950	2.9	0.9	5.9	15.6	1.2	4.2	7.7	-1.6	-20.0	-21.4
	메리츠화재	18,600	1.9	1.1	6.8	16.8	1.6	-0.3	-3.6	-9.5	-26.3	-20.9
	한화손해보험	7,020	0.7	0.6	5.6	11.9	0.9	7.2	7.8	-4.6	-21.5	-13.8
	증권	1,806		0.8	8.5	9.4	1.0	-0.4	-2.3	-14.4	-22.6	-9.1
	삼성증권	32,400	2.6	0.6	7.8	8.1	0.9	0.3	-3.9	-11.1	-23.6	-11.5
	미래에셋대우	8,090	4.7	0.7	8.6	8.4	0.7	-1.0	0.6	-14.8	-24.0	-12.0
	NH투자증권	13,000	3.3	0.8	8.6	9.1	1.0	-0.8	-8.5	-13.9	-19.0	-6.5
	한국금융지주	69,700	3.5	0.9	6.7	14.8	1.2	-3.1	-14.1	-20.8	-17.7	1.0
	키움증권	93,000	1.8	1.1	7.2	17.9	2.6	-1.7	-9.7	-20.9	-14.3	6.2
일본	Nikkei225	22,525		1.7	16.2	10.3	2.0	-0.8	3.4	0.2	4.2	-1.1
	보험	1,031		0.8	10.6	7.0	0.7	-1.4	4.1	-1.6	1.9	-2.8
	Dai-ichi Life Holdings	4,600	29.3	2.6	53.6	4.7	2.6	-1.6	9.5	20.3	17.1	56.6
	Japan Post Insurance	2,381	12.8	0.7	15.6	4.6	0.1	-1.4	4.7	-11.3	-18.4	-10.1
	Tokio Marine Holdings	5,260	35.4	1.0	14.4	7.3	1.1	-2.8	-1.3	1.3	1.8	2.3
	증권	386		0.8	9.4	8.2	0.6	-1.7	0.2	-9.9	-11.5	-11.3
	Nomura Holdings	519	17.0	0.6	7.2	9.0	0.6	-3.0	-1.5	-15.8	-25.3	-22.0
	Daiwa Securities	656	10.0	0.8	10.1	8.6	0.6	0.1	3.9	-0.7	-16.1	-7.3
	SBI Holdings	2,908	5.9	1.4	12.7	11.9	1.2	-1.3	10.4	-2.3	16.5	23.4
중국/홍콩	Hang Seng	27,676		1.2	11.2	12.9	1.1	-3.9	-2.3	-7.5	-9.5	-7.5
	상해A주 지수	2,870		1.3	10.9	12.2	1.2	-4.6	-0.2	-11.3	-18.7	-17.1
	보험	141		1.2	10.5	11.4	1.9	-4.4	-0.1	-9.0	-22.9	-22.0
	China Life	19	85.1	1.3	11.2	12.4	1.4	-5.5	-1.6	-13.3	-27.8	-22.9
	Ping An Insurance	70	158.2	2.0	11.2	19.3	1.5	-4.9	0.9	-6.1	-21.6	-13.6
	AIA	66	101.9	2.2	18.1	13.0	2.5	-3.6	-1.2	-2.6	3.8	-0.7
	증권	86		1.0	13.9	7.8	51.7	-7.0	-6.8	-27.2	-33.3	-31.7
	CITIC Securities	15	27.4	1.0	12.1	8.5	2.0	-5.5	-0.5	-20.1	-25.4	-7.7
	Haitong Securities	7	13.7	0.6	8.2	7.6	1.8	-7.9	-0.4	-29.1	-40.5	-35.1
	Huatai Securities	12	14.1	0.8	9.4	8.7	2.0	-5.0	-0.7	-25.3	-31.3	-25.1
미국	S&P500	2,840		3.3	17.6	18.4	3.6	0.8	2.9	6.6	5.4	6.2
	보험	387		1.3	11.9	11.0		-0.2	3.4	1.4	-2.1	-3.7
	AIG	54	47.7	0.7	11.5	6.8	0.9	-1.3	-0.5	1.5	-11.5	-10.0
	Metlife	45	45.3	1.0	8.8	10.3	0.7	-0.5	4.1	-1.9	-1.2	-10.3
	Prudential Financial	99	41.5	0.9	8.1	12.0	0.6	0.5	5.4	-1.2	-10.3	-13.5
	증권	200		2.1	14.5	13.0	1.3	-2.6	0.5	-1.8	-3.8	-1.3
	JP Morgan	117	393.5	1.7	12.8	13.5	1.3	0.9	12.9	8.0	7.6	9.5
	Goldman Sachs	234	91.8	1.2	9.5	12.7	1.0	-1.5	6.0	-0.4	-6.0	-8.1
	Charles Schwab	50	67.9	3.6	20.6	18.7	1.3	-4.3	1.6	-10.3	-1.9	-2.1
유럽	MSCI Europe	131		1.8	14.7	10.4	1.0	-0.7	1.7	0.4	4.3	-0.2
	보험	75		1.1	10.8	12.6	1.0	0.4	2.6	-4.6	-0.9	-2.5
	Allianz	187	93.4	1.2	10.8	11.4	0.9	0.3	4.1	-5.8	-5.5	-2.1
	AXA	22	62.0	0.7	8.9	8.9	3.8	3.9	4.4	-2.2	-16.3	-10.9
	Prudential plc	1,747	59.0	2.5	11.7	23.2	0.5	-1.6	-0.9	-7.7	-5.3	-8.3
	Munich Re	188	32.6	1.0	11.2	8.9	1.0	0.7	2.2	-1.0	-1.3	4.1
	증권	74		1.1	14.7	6.5	0.6	-0.1	2.9	-3.1	-3.9	-6.7
	UBS	16	62.3	1.2	11.6	9.1	1.2	0.2	6.3	1.4	-12.1	-8.5
	Credit Suisse	16	40.6	0.9	13.5	6.7	0.4	1.5	5.5	-3.9	-10.1	-8.0
	Deutsche Bank	11	25.8	0.4	23.5	1.1	0.1	1.3	13.0	-6.6	-21.2	-32.2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16	1,809	1,843	1,849	1,827	1,853	0.7	-2.7	-3.3	-1.1	-3.7
		3 Year	2,102	2,110	2,137	2,250	2,245	2,134	-0.8	-3.5	-14.8	-14.3	-3.2
		5 Year	2,355	2,355	2,380	2,534	2,522	2,347	0.0	-2.5	-17.9	-16.7	0.8
		10 Year	2,575	2,570	2,577	2,757	2,752	2,467	0.5	-0.2	-18.2	-17.7	10.8
일본	국고채	1 Year	-0.110	-0.115	-0.125	-0.134	-0.130	-0.145	0.5	1.5	2.4	2.0	3.5
		10 Year	0.110	0.104	0.033	0.045	0.086	0.048	0.6	7.7	6.5	2.4	6.2
중국	국고채	1 Year	2,763	2,937	3,122	2,960	3,552	3,834	-17.4	-35.9	-19.7	-78.9	-107.1
		10 Year	3,464	3,524	3,497	3,653	3,919	3,902	-6.0	-3.3	-18.9	-45.5	-43.8
미국	국고채	1 Year	2,408	2,404	2,309	2,223	1,866	1,732	0.5	9.9	18.5	54.3	67.7
		10 Year	2,949	2,954	2,831	2,946	2,841	2,405	-0.5	11.8	0.3	10.8	54.3
유럽	국고채	1 Year	-0.536	-0.532	-0.562	-0.563	-0.562	-0.611	-0.4	2.6	2.7	2.6	7.5
		10 Year	0.408	0.403	0.294	0.532	0.767	0.427	0.5	11.4	-12.4	-35.9	-1.9

자료: Bloomberg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기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자를 돋보이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 의견은 항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9%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